

기사입력 2015/11/23 18:34

▶ 인쇄하기

제1회 정주영 에세이 공모전 시상식



지난 21일 펜실베이니아주 포트워싱턴에 있는 힐튼가든인호텔에서 열린 제1회 정주영에세이공모전 시상식에서 최미영 재미한국학교협의회장(앞 줄 오른쪽 세 번째)과 방무성 정주영기념미주재단 이사장(6번째)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시상식 후 입상 학생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.

아산 정주영 탄생 100주년 기념 제1회 정주영 에세이 공모전 시상식이 지난 21일 펜실베이니아주 포트워싱턴에 있는 힐튼가든인호텔에서 열렸다.

정주영기념미주재단(이사장 방무성)이 주최하고 재미한국학교협의회(NAKS.회장 최미영)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재단 및 NAKS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.

현대그룹 설립 초기 총무과장으로 근무했던 방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"정주영 회장이 도전정신 창조정신 비전정신 등 세 가지 정신을 갖고 있었는데 그 누구도 그 분을 따라갈 수 없었다"며 "미국에서 태어난 한인 어린이들이 정주영 회장의 정신을 본받아 나중에 사회의 지도자로 크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"고 에세이 공모전 시작 이유를 설명했다.

최 회장은 "정주영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시상식을 갖게 돼 기쁘다"며 "학생들에게 도전과 목적의식 꿈을 심어 준 재단과 각 한국학교 교사들에게 감사하다"고 말했다.

150여 명의 학생들이 참가한 이번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서북미지역협의회 소속 느티나무한글학교 노지영 양을 포함해 11명의 학생들의 수상 영광을 안았다. 노양에게는 상장과 장학금 1000달러가 수여됐으며 시상식에 참가할 수 있도록 왕복항공권과 1박2일 체제비 일체를 재단에서 제공했다.

노양은 자신의 에세이를 통해 "정주영 회장님 하면 '노력'이라는 단어가 떠 오른다"며 "그 분의 정신을 본 받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반드시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"고 소감을 밝혔다.

에세이 공모전 심사는 오세웅 라이더대 영문학과장 조현용 경희대 국제교육원장 정영아 조지메이슨대 한국어과 교수 등 세 명이 담당했다.

대상을 받은 노양과 은상 수상자 김하은 양 외 나머지 수상자들은 사정상 동영상 수상 소감문을 보내는 것으로 참석을 대신했으며 재단에서 상장과 장학금을 개별적으로 발송했다.

다음은 수상자 명단. 괄호 안은 학년.한국학교.지역협의회 순.

▶대상(1000달러) : 노지영(9.느티나무한글학교.서북미) ▶금상(500달러) : 박아이린(6.애틀란타한국학교.동남부).이하늘(7.사모아한글학교.하와이) ▶은상(300달러) : 정욱(6.넷가에심은한글학교.동남부).홍성범(4.몬트레이한국학교.북가주).이새하(7.달라스한국학교.남서부).김하은(9.아콜라한국문화학교.동북부) ▶동상(200달러) : 김새순(6.애틀란타한국학교.동남부).김혜린(6.실리콘밸리한국학교.북가주).윤지수(9.벨뷰통합한국학교.서북미).장선진(9.다솜한국학교.북가주)

권택준 객원기자